



독일 바이에른 뮌헨 아르연 로벤이 2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르트문트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1-1로 팽팽하던 후반 44분 극적인 결승골을 넣은 후 기뻐하고 있다. 챔피언스리그 통산 5번째 우승 트로피인 '빅 이어'(Big Ear)를 들고 환호하는 뮌헨 선수들(작은 사진). /연합뉴스

로벤, 역적에서 영웅으로

UEFA 챔스 결승, 지난해 PK 실축 악몽 털고 도르트문트전 1골 1도움... 뮌헨 12년만에 우승

뮌헨 2-1 도르트문트

사상 처음으로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팀끼리 맞붙은 2012-201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제압하고 12년 만에 우승 트로피인 '빅 이어'(Big Ear)를 뒤흔었다. 뮌헨은 26일(한국시간) 오전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르트문트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1-1로 팽팽하던 후반 44분 아르연 로벤의 극적인 결승골을 앞세워 2-1로 이겼다. 이로써 뮌헨은 2000-2001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우승 이후 12년만에 '유럽 챔피언' 자리에 오르며 통산 다섯 번째 우승 트로피와 함께 우승 상금 1050만 유로(약 153억원)를 보너스로 챙겼다.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한 뮌헨의 유프 하이케스(68) 감독은 이번 시즌 뮌헨의 분데스리가 우승과 함께 UEFA 챔피언스리그까지 우승으로 이끌면서 '명장'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반면 1996-1997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도르트문트는 16년만에 정상 탈환을 노렸지만 어렵게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불꽃 튀는 양팀 골키퍼들의 화려한 '선방쇼'가 펼쳐진 가운데 전반 중반까지 최전방부터 강하게 뮌헨의 공격진을 압박한 도르트문트의 일방적인 공세가 이어졌다.

전반 10분 만에 아르 블라시치코프스키의 슈팅으로 공격의 신호탄을 올린 도르트문트는 전반 13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시도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강력한 슈팅이 뮌헨의 골

퍼 마누엘 노이어의 빛나는 선방에 막혔다. 도르트문트는 이어진 공격에서 마르코 로이스의 오른쪽 측면 크로스 블라시치코프스키가 골지역 오른쪽에서 논스톱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무의식적으로 왼발을 내민 골키퍼 노이어의 발끝에 걸려 또 한 번 결정적 골 기회를 날렸다. 기세가 오른 도르트문트는 전반 19분 역습 상황에서 시도한 로이스의 왼발 슈팅과 전반 21분 슐벤 베nder의 오른발 슈팅이 모두 뮌헨의 '거미손'

노이어의 철벽 방위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주도권은 뮌헨이 잡았고, 선제골도 뮌헨의 몫이었다.

뮌헨은 후반 15분 역습 상황에서 라베리가 전방으로 투입한 볼을 로벤이 잡아 페널티지역 왼쪽 구석에서 크로스를 올리자 골대 정면에 도사리던 만주키치가 침착하게 왼발로 방향을 바꿔 골맛을 봤다.

하지만 뮌헨의 리드는 8분 만에 끝났다. 선제골을 내준 도르트문트는

후반 23분 로이스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뮌헨의 수비수인 단테로부터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키커로 나선 일카이 곤도간이 동점골을 만들어 경기의 균형을 맞췄다.

무승부의 기운이 점점 깊어지던 후반 44분 뮌헨의 오른쪽 날개 로벤이 해결사를 맡았다. 뮌헨은 후반에서 길게 찢어진 볼을 라베리가 잡아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볼을 흘려줬고, 쇠도하던 로벤이 잡아 수비수를 제치

있게 따돌린 뒤 골 지역 정면에서 왼

발 슈팅으로 도르트문트의 골그물을 흔들며 팀의 우승을 확정했다.

로벤은 이날 1골-1도움을 작성, 뮌헨 우승의 일등공신이 됐다. 특히 이번 무대로 지난해 챔피언스리그 첼시와의 결승에서 페널티킥을 실패한 아쉬움을 지우는 데 성공했다.

로벤은 "말 그대로 집안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리베리로부터 좋은 패스가 들어왔다"며 "오늘 우승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기뻐했다.

/연합뉴스

강경남 17번홀 '이글' 광주은행 오픈 우승

KPGA 19개월만에 정상 "고향 팬들에 보답 기쁘다"



해남출신 강경남이 전통 도포 의상을 입고 '제1회 해피니스 광주은행 오픈' 청자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있다. <KPGA제공>

26일 나주 해피니스 골프장(과72·7042야드)에서 막을 내린 한국 프로 골프(KPGA) 투어 '제1회 해피니스 광주은행 오픈'에서 초대 챔피언인 강경남(30·우리투자증권)은 "고향 팬들에게 우승으로 보답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경남은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3개,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20언더파 268타를 기록한 강경남은 17번홀(과5)에서 짜릿한 이글을 낚아 19언더파 269타를 친 박현빈(26·별빅)을 한타 차로 따돌리고 대역전승을 일궜다.

첫날 8언더파 64타를 때려 코스 레코드를 작성한 그는 나흘내내 선두를 한 번도 뺏기지 않고 추배를 드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일궜며 두 배의 기쁨을 누렸다.

강경남은 2011년 10월 메리츠솔로로 오픈 이후 19개월 만에 통산 9번째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또 우승상금 1억원을 쟁겨 시즌 상금 랭킹에서 5계단 상승한 4위로 도약했다.

지난해 이 코스에서 치러진 제55회 KPGA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이상희(21·호반건설)는 18언더파 270타로 김도훈(24)과 더불어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일본 프로골프투어(JGTO) PGA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한국에서도 2주 연속 우승을 노린 김형성(33·현대하이스코)은 15언더파 273타로 공동 6위에 올랐다. 또 전날 2위였던 이태희(29·

리시엔캐시)는 이날 2타를 깨며 14언더파 274타로 공동 9위에 머물렀다.

해남 출신으로 광주에서 골프를 시작한 그는 "격정을 많이 해 잠을 잘 못 잤으나 힘든 경기 끝에 고향에서 우승해 더욱 기쁘다"며 "퍼트 연습을 많이 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20대 때보다 더 연습을 많이 하고 특히 짧은 퍼트 연습을 중점적

으로 한다고 소개했다. 강경남은 "대회에서 1m 퍼트를 놓치면 흐름이 무너진다"며 "짧은 퍼트를 연습하다 보니 먼 거리 퍼트 성공 확률도 높아지고 이는 곧 자신감으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승부처인 17번 홀에서 이글을 잡을 때 상황을 복기한 강경남은 "드로 티 샷이 다행히 잘 맞았고 3번 아이언으로 친 두 번째 샷도 좋았다"며 "이글 퍼트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린에 올랐는데 핀 10cm 옆에 붙어 있어 짜릿했다"고 말했다.

후배들과 막판까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명승부를 펼친 강경남은 "KPGA 투어가 도약하려면 스타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성남의 분당 이매고 후배로 준우승한 박현빈에 대해 "체구는 그리 크지 않지만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이고 센스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우승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덕담했다.

강경남은 해외 진출 소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상반기에 우승했으니 통산 10승과 시즌 개인 최다승 신기록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강경남의 시즌 최다승은 2007년 거문 3승이다.

강경남은 시상식에서 서양식 우승 자켓 대신 한국 전통 도포 의상을 입고, 강진청자축제 조직위원회에서 특별 제작한 강진 청자를 우승컵으로 들어 올려 눈길을 끌었다.

한편 KPGA 코리아투어 선수회 일동은 '제1회 해피니스 광주은행 오픈' 대회 총상금의 일부를 전남도 골프협회 주니어 육성자금으로 기부했다.

선수회 대표인 이인우(41)는 "올 시즌 신설된 이번 대회로 인해 KPGA 코리아투어가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전남지역 골프 활성화와 주니어 선수 육성을 위해 성숙된 기부 문화를 이끌어가고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가 미스터 광주" 26일 KT 광주 정보통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27회 미스터 광주 선발대회 겸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제1차 광주예선대회'에 출전한 일반부 65kg이하 밴텀급 선수들이 규정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배드민턴 '네트가 만리장성'

세계 혼합단체 선수권대회 중국에 저 준우승

세계 혼합단체 선수권대회에서 10년만에 우승을 노린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이 '만리장성'을 넘지 못하고 준우승했다.

이득춘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푸트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13회 세계 혼합단체 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중국에 0-3로 졌다.

조블리그 B조에서 2연승으로 1위를 차지한 한국은 8강전 독일, 준결승전에서 태국을 차례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지만, 중국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한국은 1991, 1993, 2003년 이후 통산 네 번째 우승에 도전했으나, 2009년 이후 4년 만에 준우승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